

‘지속 가능 · 미래 생동 · 비전 가득’ 부안 실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사업 차별화로 지역발전 견인

민선 7기 권익현 부안군수는 취임 3주년을 맞아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소멸위기에 벗어나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안군 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연지 1년여 만에 6,000억원 시대를 개막하고,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 포함 7,000억원 시대를 달성했다. 이중 국가예산만도 지난 2018년 4,150억원에서 2019년 4,374억원, 2020년 5,412억원, 2021년 5,703억원 등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부안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부안군은 민선7기 4년차를 맞아 해처럼 빛나도록 지속해야 할 성과를 되돌아보고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가야 할 방향과 산처럼 의연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실현의 퍼즐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찾은 문 대통령과 함께

공약추진 군민과의 약속 성실 이행

민선 7기 부안군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추진에 있어 전국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약은 총 69건으로 현재 53건이 완료됐으며 15건이 정상추진, 1건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부안군 공약이행률은 76.8%로 전국 평균 54.12%와 전북 평균 52.93%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약속대상 최고등급, 2019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평가 최고등급, 2021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등 공약수립부터 실천계획, 이행률 등 공약 관련 모든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전북대 부안캠퍼스 개관

국가예산 5700억원 시대 돌파

부안군의 주요 성과로는 수소연료전지와 해상풍력 관련 기업유치 등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성과를 꼽을 수 있다. 부안군 예산규모는 민선 6기 5,000억원에서 민선 7기 3년 만에 7,000억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국가예산 확보액도 민선 6기 마지막 해인 지난 2017년 4,150억원에서 올해 5,703억원으로 1,553억원(37.4%)이나 증가했다. 특히 탄소복합재-수소융복합 드론용 연료전

공약 69건 중 53건 '완료'
현재까지 이행률 76.8%
민선 7기 3년 만에 예산규모 7000억원 규모로 늘어
수소연료전지·해상풍력 등 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 구축
부안형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격포권 관광단지 조성 추진



격포 관광단지 개발 협약

지 생산 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 스타트업 관내 이전·유치, 수소충전소 건립,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 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1번지 부안'을 만들고 있다. 또 서남권 해상풍력 개발사업 기업유치 및 관련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해상풍력(주) 분사 이전을 추진했다.

제값 받는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부안군은 부안형 푸드플랜과 부안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 국산 밀 산업 허브 육성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실현하고 제값 받는 농정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자족도시 부안 실현을 목표로 먹거리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4대 전략 13개 과제, 46개 세부 사업에 대한 부안형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6월에 부안군 로컬푸드직매장 '뫄밭할매'도 개장했다. 특히 부안을 국산 밀 산업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며, 축산물 공동브랜드 '참풍부안'을 개발해 부안 축산물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 인강시의 우호 협약



민주 아남연전 대표의 부안 방문



어르신 배식봉사

격포권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대일변산관광개발(주)과 양해각서를 체결, 오는 2026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숙박시설, 레저파크, 캠핑파크, 스파위터파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또, 부안군은 공항 마리나항만과 크루즈 인프라 조성을 연계한 공항마리나 민간투자 유치에 나서 네오넥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항 마리나항만은 총 14만7,866㎡ 부지에 계류시설 80대, 방파제 등 78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군민 체감 희망복지 실현

군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인프라 구축과 군민이 체감하는 희망복지 실현 등 사람 중심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이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과 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아동학대 공공성 확보 및 24시간 대응체계 마련 등 양육·돌봄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와 마을희망지기 확대 운영을 통한 복지안전망 강화, 장애인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 군민이 체감하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 방문

대규모 민간투자 활성화로 글로벌 휴양관광 도시 박차
부안군은 격포권을 관광지답게 변화시키고자

변산면 마포리 일원 97만5,374㎡ 부지에 숙박 시설, 골프장 등 복합기능을 갖춘 격포권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권익현 군수의 포부

이루지 못한 사업 착수 정상궤도 오를 수 있도록

권익현 부안군수는 취임3주년을 맞아 수소연료전지사업 육성과 부안형 푸드플랜 추진 등을 통한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매력도시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한 것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군은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중심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부안형 푸드플랜 추진 등으로 다시 돌아오는 농촌 공동체가 살아있는 부안을 실현하겠다"며 "수소산업 육성과 함께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격포권 관광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부안군정을 돌이켜보면 질한 성과도 많지만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사업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며 "민선 7기남은 1년, 부안군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착수되고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